

2024 대한민국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인식조사: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다

2024 Korea Digital Business Trend Study: Listening to Voices from Academia and Industry

신 하 진 (Hajin Shin)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안 현 철 (Hyunchul Ahn)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 태 경 (Taekyung Kim)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부 교수
이 정 (Jung Lee) 한국외국어대학교 GBT학부 교수, 교신저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여 2024년에 주목할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ICT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특히,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트렌드를 도출하였으며,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과정에서 국내외 주요 시장조사기관의 보고서를 수집 및 분석하여 초기에 20개의 예비 후보 트렌드를 도출했다. 이후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1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 20개 트렌드와 전년도에 선정된 10대 트렌드 중에서 총 15개의 최종 후보 트렌드를 선별했다. 마지막 단계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209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11개를 선정했다. 이처럼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과학적으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전망을 제시한 본 연구는 한국의 IT 트렌드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해하고 국제적인 트렌드와의 차이를 이해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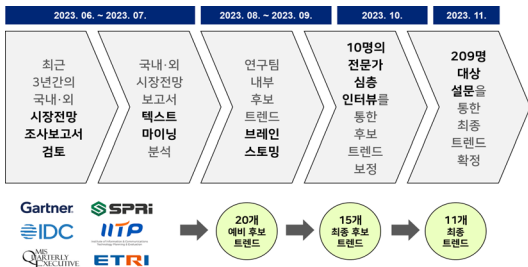
키워드 :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비즈니스 리더, 비교연구, IT전략, IT전문가

I. 서 론

한국경영정보학회(KMIS)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를 예측하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이

들은 해외 기관의 글로벌 트렌드 중심 보고서와 국책 연구기관의 IT 중심 보고서의 한계를 넘어, 한국 시장과 규제 환경에 맞는 비즈니스 관점의 시장 전망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노력하고 있다(양희동 등, 2023). 또한 KMIS와 FKII

의 이번 연구에서는 트렌드 평가 시, IT 서비스 제공자(vendor) - IT 서비스 수요자(consumer) - IT 서비스 분야의 학자/연구자(academics)들의 전망을 분리하여 평가함으로써 트렌드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에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올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1) 각 트렌드가 미칠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시장과급력, (2) 각 트렌드가 미칠 영향의 지속가능성을 표현하는 지속성, 그리고 (3) 각 트렌드가 유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의미하는 정부지원 필요성으로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출된 트렌드들을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2024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전망 연구조사 과정

<그림 1>은 이번에 수행한 연구조사 절차를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제일 먼저 2024년의 한국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은 2023년 6~7월 기간 동안 Gartner, IDC, SPRI 등의 기관들이 발표한 ICT 시장과 기술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이들 보고서를 통해 워드클라우드, N-gram, 토픽 모델링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 최근 ICT 분야에서 주목받는 키워드들을 계량적으로 조사하였다.

이어 2023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앞서 분석·조사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팀 내부적으로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예비 후보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

다. 이러한 심층 내부 토의를 통해 본 연구팀에서는 총 20개의 예비 후보 트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2023년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연구팀은 20개의 예비 후보 트렌드와 전년도의 10대 트렌드를 포함한 30개 예비 트렌드에 대한 ICT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 시장조사기업, ICT 분야 대기업, 컨설팅 회사 및 스타트업의 대표 및 임원, 그리고 학계의 대표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15개의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거나 지속적으로 중요한 후보는 제외하고, 일부 트렌드들은 통합 및 조정을 거쳐 재정리하였다.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연구팀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15개의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후보에 대해 학계, IT 서비스 공급 및 수요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09명의 전문가 응답을 토대로 후보트렌드들의 순위를 매겨, 2024년 주목해야 할 11개의 주요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조사 절차는 KMIS 소속 학계 교수진과 FKII 소속 산업계 임원진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를 전망하는 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 연구의 범위를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에 한정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단체의 활용 가치를 높였고, 텍스트마이닝과 대규모 설문조사와 같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점이다. 이후 논문의 구성으로는 2장부터 4장까지 각각 예측 보고서 분석,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라는 3단계 집단 지성 기반 연구조사의 세부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 후 5장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I. 국내·외 예측 보고서 분석

주요한 조사 기관으로 알려진 글로벌 리서치 기관 가트너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그리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를 발표한 바 있다. 각 기관이 제시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후 5개 기관이 최근 3년간 발표한 ICT 분야의 보고서를 텍스트 유형의 파일로 변환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어떤 예비 후보 트렌드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2.1 국내·외 연구기관의 트렌드 전망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는 2024년의 주요 기술 트렌드로 AI 신뢰, 리스크 및 보안 관리(AI TRiSM)를 지목했다(Gartner, 2023). 이 트렌드는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모델옵스, 데이터 보호, AI 보안, 데이터 및 모델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가트너는 2026년까지 AI TRiSM 제어 기능을 적용한 조직이 오류와 불법 정보를 80%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AI, 암호화폐, IoT,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 사용이 에너지 소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순환적인 지속 가능한 IT 사용이 중요해졌다고 발표했다.

IDC는 IT 분야의 AI 관련 지출이 신속하고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대부분의 산업과 응용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IDC, 2023). 2025년까지 글로벌 2000(G2000) 기업들은 핵심 IT 지출의 40% 이상을 AI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의 두 자릿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 산업은 AI의 전환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AI 강화 제품 및 서비스 도입과 고객들의 AI 구현 지원에 경쟁할 것이다. IDC는 AI가 클라우드를 대체하며 혁신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2023년 SW산업 10대 이슈 중 인공지능 기반 모델의 고도화를 1위로 선정했다(SPRi, 2023). 특히,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이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기업들은 사내 구축형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형 SaaS의 공공부문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2024년 ICT 10대 이슈’에서 인공지능(AI)을 핵심 트렌드로 꼽았다(IITP, 2023). 이들은 초거대 AI가 모델을 넘어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어 디지털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AI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콘텐츠 영역에서의 AI 활용 증가로 인해, 반도체 소형화 및 고성능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ICT 생산과 수출의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기 자동차, 자율 및 무인화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행동체’의 등장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23년에 AI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신뢰 가능한 AI에 대한 연구 개발과 AI 의사결정의 법적·제도적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ETRI Insight, 2023). 이는 AI 사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회복탄력기술의 개발 및 적용,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디지털 재난 시뮬레이션과 훈련, 사용자 고지 방안, 디지털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정립과 같은 디지털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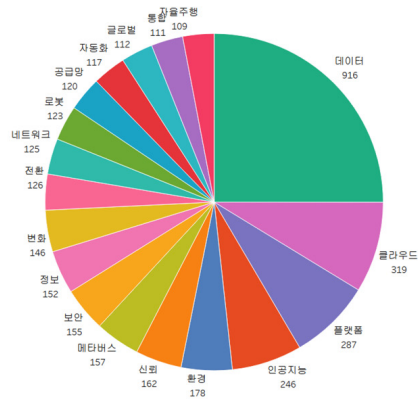
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최근 3년간 발표한 ICT 분야의 각종 시장 및 기술 전망 조사보고서 총 20개의 한국어 문서들을 텍스트 유형의 파일로 변환하였으며 특수문자를 비롯한

화이트스페이스 문자를 제거하여 전처리를 완료했다. chatgptR(<https://github.com/drtagkim/chatgptR>)의 프롭트 엔지니어링 도구를 통해 문장에서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사용된 인공지능 엔진은 ChatGPT3.5-16k 모델이다. 이는 단순히 명사를 추출하거나 조사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인공지능이 문맥을 통해 핵심 단어를 추려내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단어 토큰(token)으로 이루어진 분석 워드백(word-bag)을 갖추도록 한다. R로 정리된 데이터는 Python을 비롯하여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표현용 프로그램 등으로 다시 처리되었다. 또한 Textom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N-gram 분석, 클러스터링, 토픽모델링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요 키워드의 중요성과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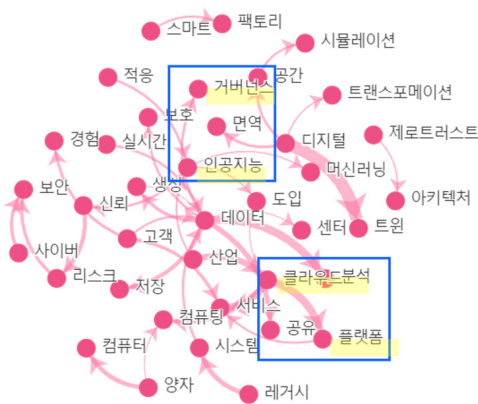
‘인공지능’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GPT를 사용한 분석은 기존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더 유의미한 고빈도 키워드를 도출했다. GPT 기반의 워드클라우드와 파이차트 분석 결과, 모든 트렌드의 중심에 ‘데이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클라우드, 플랫폼, 인공지능이 중요한 서비스로 강조되었다(<그림 2> 참조). Textom 엔진을 사용한 결과도 GPT 분석과 유사했으며,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 로봇, 인공지능이 주요 서비스로 지목되었다. 또한, ‘보안’과 ‘신뢰’도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N-gram 분석 결과, 데이터는 인공지능, 생성, 클라우드, 고객, 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이 거버넌스와, 클라우드는 플랫폼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2> 워드클라우드 / 파이차트 분석결과



<그림 3> Textom 버전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좌: 빈도기준 / 우: TF-IDF 기준)



〈그림 4〉 N-gram 분석 결과

2.3 20개 예비 후보 트렌드 도출

2023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실시한 보고서 분석

〈표 1〉 20개의 2024 예비 후보 트렌드

ID	2024년 예비 후보 트렌드
N1	생성형 AI 기반 비즈니스 응용 활성화
N2	메타클라우드의 부각
N3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디지털 면역 시스템의 기능 강화
N4	그린 IT를 통한 탄소 배출 감소 및 친환경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N5	Edge AI Ecosystem(엣지 AI 생태계)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N6	공기처럼 존재하는 앰비언트 컴퓨팅과 AI 원천기술 고도화
N7	디지털 플랫폼에서 오픈 API가 다른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며 플랫폼 이코노미를 지원
N8	HMD 기기 진화와 플랫폼 간 경쟁 심화
N9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태동
N10	협동로봇, 턴키 솔루션의 도입 확대
N11	메타버스 기술의 비즈니스 활용 확대: 경험에의 몰입
N12	IT 인프라 최적화에 대한 기업의 노력 강화
N13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착 및 확산
N14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인한 기업과 조직 내에서의 최적의 업무결과 창출
N15	적응형 AI(adaptive AI) 기반 비즈니스의 등장
N16	슈퍼앱이 주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N17	Trustless 시스템과 블록체인 도입 확대
N18	LCNC(Low Code, No Code), Code Assistant 등 차세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도입 활성화
N19	드론의 진화를 통해 보안관계 산업의 혁신 확산
N20	자율주행/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C-ITS(Cooperative) 시장의 성숙

자료들을 참고하여, 연구팀에서는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예비 후보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심층 회의를 통해 최대한 포괄적인 트렌드 리스트를 구성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표 1>과 같은 총 20개의 예비 후보 트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III. 전문가 인터뷰에 기반한 후보 트렌드 선정

3.1 전문가 인터뷰 개요

최종 후보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년도에 선정된 2023년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10대 트렌드(<표 3> 참조)와, <표 4>에서와 같이 새롭

게 도출된 20개의 예비 후보 트렌드를 합하여 총 30개의 예비 후보 트렌드 리스트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열 명의 ICT 분야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그들이 해당 트렌드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전망하고 있는지 사전 설문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20개의 최종 후보 트렌드 리스트를 확정하였다.

열 명 전문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 시장조사기업, ICT 분야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 컨설팅회사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 대표 혹은 임원들로 구성된 산업계 전문가 8명과 관산학 협력 및 자문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학 교수로 구성된 학계 전문가 2명 등이 있다(<표 2> 참조). 심층 인터뷰는 2023년 9월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전문가 한 명 당 한 시간씩 진행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어 본 연구의 내용적 일관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표 2> 인터뷰에 참여한 10인의 산업계/학계 전문가 (가나다순)

번호	유형	성명	소속기관
1	산업계	김OO	KRG
2	산업계	김OO	디지털엑스원
3	산업계	김OO	초록소프트
4	학계	김OO	서강대학교
5	산업계	김OO	국내 대형 포털기업
6	산업계	문OO	KT
7	산업계	신OO	알서포트
8	학계	유OO	서울대학교
9	산업계	정OO	삼성 SDS
10	산업계	지OO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3.2 전문가 인터뷰 결과

사전 설문문은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되었는데 Part I에서는 작년에 선정된 ‘2023 국내 디지털 비

즈니스 10대 트렌드’의 차년도(2024년) 유효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Part II에서는 올해 새로 선정된 20가지 신규 후보 트렌드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Part III에서는 연구팀에서 제시한 트렌드 외에 추가로 내년도 주목해야 할 기술 및 비즈니스 관련 트렌드들에 대해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트렌드를 시장 파급력, 지속성, 정부 지원 필요성, 전반적인 유효성의 네 가지 차원에서 5점 척도로 평가했다. 이는 트렌드의 향후 전망을 단순한 좋음/나쁨이 아닌,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 트렌드는 시장 파급력이 크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 관련 트렌드는 정부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유효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표 3>과 <표 4>는 각각 2023년 선정 10대 트렌드의 24년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 9인의 평가 결과와 2024년 후보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10인의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전년도 1위 트렌드였던 ‘AI 플랫폼 경쟁 가열’은 2023년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여전히 높은 유효성 평가를 받았으며 반대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트렌드는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반대로 ‘클라우드 Native’와 ‘총체적 경험 구현의 본격화’는 순위가 상승하였다. <표 5>는 전문가 인터뷰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12개의 트렌드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이 속한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다양한 트렌드들이 자유롭게 추천되었는데, 주목할만한 특징으로는 AI거버넌스, 신뢰성 있는 AI, AI반도체 등 역시 AI 관련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트렌드들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토큰증권의 발행, 양자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 관련 트렌드들이 지지를 받았다.

〈표 3〉 2023년 선정 10대 트렌드의 24년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 9인의 평가, 순서는 무작위

연	2023년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전망 10대 트렌드	전문 가1	전문 가2	전문 가3	전문 가4	전문 가5	전문 가6	전문 가7	전문 가8	전문 가9	종합 점수	순위
O1	AI Platform 경쟁 가열	4	4	5	5	4	5	5	5	4	4.56	1
O2	사용자 중심의 X(application) + AI 추세 확대	2	3	5	4	4	5	4	5	4	4.00	4
O3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2	3	5	4	3	5	3	4	3	3.56	8
O4	Cloud Native의 확산	2	4	5	5	4	5	5	5	4	4.33	2
O5	금융과 IT 융합의 가속화	3	4	5	4	3	4	5	5	4	4.11	3
O6	Cloud MSP(Managed Service Provider)의 약진	3	5	5	4	4	5	1	5	3	3.89	6
O7	보안/재해복구 등 ICT 기본(Basics)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4	4	3	4	4	5	1	3	3	3.44	10
O8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	3	4	3	4	4	4	5	3	4	3.78	7
O9	총체적 경험(Total Experience, TX) 구현의 본격화	4	4	5	4	3	4	5	3	4	4.00	4
O10	Customer Data Platform(CDP) 도입 확대	3	3	3	4	4	4	4	3	4	3.56	8

〈표 4〉 2024년 후보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10인의 평가, 순서는 무작위

연번	후보 트렌드	전문 가1	전문 가2	전문 가3	전문 가4	전문 가5	전문 가6	전문 가7	전문 가8	전문 가9	전문 가10	종합 점수	순위
N1	생성형 AI 기반 비즈니스 응용 활성화	5	5	4	5	5	5	3	5	5	5	4.70	1
N2	메타클라우드의 부각	4	2	4	3	3	3	2	3	3	4	3.10	19
N3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디지털 면역 시스템의 기능 강화	4	3	4	3	4	4	3	3	4	4	3.60	7
N4	그린 IT를 통한 탄소 배출 감소 및 친환경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4	4	5	5	3	4	4	3	4	4	4.00	3
N5	Edge AI Ecosystem(엣지 AI 생태계)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3	2	4	3	3	3	3	4	4	5	3.40	13
N6	디지털 플랫폼에서 오픈 API가 타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며 플랫폼 경제 지원	3	3	3	3	4	4	3	4	4	3	3.40	13
N7	HMD 기기 진화와 플랫폼 간 경쟁 심화	3	3	4	4	3	4	5	4	3	3	3.60	7
N8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태동	3	3	4	4	3	4	4	4	4	3	3.60	7
N9	협동로봇, 턴키 솔루션의 도입 확대	4	4	4	5	4	4	3	3	3	4	3.80	4
N10	메타버스 기술의 비즈니스 활용 확대: 경험에의 몰입	3	2	4	3	3	4	4	3	3	3	3.20	17
N11	IT 인프라 최적화에 대한 기업의 노력 강화	2	4	4	2	4	4	4	4	3	3	3.40	13
N12	공기처럼 존재하는 엠티엔트 컴퓨팅과 AI 원천기술 고도화	2	3	3	3	3	3	4	3	4	4	3.20	17
N13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착 및 확산	2	4	4	1	4	3	4	5	4	4	3.50	12
N14	인간과 AI의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인한 기업/조직 내 최적의 업무결과 창출	4	2	3	3	4	4	5	3	4	4	3.60	7
N15	적응형 AI (adaptive AI) 기반 비즈니스의 등장	2	3	3	2	4	3	3	2	3	4	2.90	20
N16	슈퍼앱이 주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4	2	4	4	5	4	4	4	4	3	3.80	4
N17	Trustless 시스템과 블록체인 도입 확대	3	3	3	4	3	4	4	4	3	3	3.40	13
N18	LCNC, Code Assistant 등 차세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도입 활성화	5	5	4	4	4	4	3	4	5	4	4.20	2
N19	드론의 진화를 통해 보안관계 산업의 혁신 확산	4	3	4	3	3	4	5	3	4	3	3.60	7
N20	자율주행/ITS/C-ITS(Cooperative) 시장의 성숙	2	3	4	4	5	4	4	4	3	5	3.80	4

〈표 5〉 추가 제안 트렌드

연번	추가 예비 후보 트렌드
1	마이데이터(MyData) 전 산업군으로의 확대
2	AI 반도체 시장 확대
3	양자기술, 양자컴퓨팅
4	생성형 AI 모델 경쟁구도 다변화
5	신뢰성 있는 AI에 대한 수요 확대
6	플랫폼 엔지니어링
7	5G, 6G, XIA, IoT
8	XR(증강현실)
9	Application Modernization(앱 현대화)
10	AI 거버넌스
11	토큰증권 발행(STO)
12	시니어 케어 시장 확대

3.3 15개 최종 후보 트렌드 선정

본 연구팀은 이상의 심층 인터뷰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총 15개의 2024년 주목해야 할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최종 후보들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평가가 크게 엇갈리거나, 시점에 관계없이 늘 중요하여 2024년의 주요 트렌드로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트렌드는 제거하였다. 또한 일부 중복 혹은 지엽적 후보 트렌드들은 상호 통합 및 조정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도 유효한 트렌드들로 재정리하였다.

<표 6>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도출된 15개의 최종 후보 트렌드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3번 트렌드인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의 응용 확대는 기존의 AI관련 세 가지 트렌드를 통합하여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4번 생성형 AI 기술 기반 스타 스타트업들의 출현 트렌드는 전년도 트렌드 중 사용자 중심 어플리케이션의 확산과 올해 추천 트렌드 중 생성형 AI 기반 비즈니스 응용 활성화를 통합하여 개념을 재정리하였다.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에 복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시각을 담아내기 위한 연구팀의 노력 결

〈표 6〉 15개 최종 후보 트렌드 리스트

연번	관련 기추천 후보 트렌드	최종 후보 트렌드
1	O1	클라우드 AI 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성장 및 확대
2	O4	Cloud Native의 확산 지속
3	N1+N14+N18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의 응용 확대
4	N1+O2	생성형 AI 기술 기반 스타 스타트업들의 출현
5	N4	친환경 IT기술 도입을 통한 ESG 경영 강화
6	N13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착 및 확산
7	N16	슈퍼앱이 주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8	N20	자율주행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성숙
9	N3+O7	AI가 촉발하는 정보보호/보안 위협 확대
10	N9+N8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이 주도하는 로봇 시장의 성장
11	N7+N10	공간 컴퓨팅 시대의 개막
12	O5 +N17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금융 IT혁신 본격화
13	O8	규제완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14	N18	LCNC를 통한 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15	NEW	AI 관련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Ok: 2023년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중 k번째 트렌드(k: 1~10)

Nk: 2024년 디지털 비즈니스 후보 트렌드 중 k번째 트렌드(k: 1~20)

NEW: 전문가 제안에 따라 새로 반영한 트렌드

과 최종적으로 15개의 후보 트렌드 리스트가 완성되었다.

VI.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한 최종 트렌드 선정

4.1 설문조사 과정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정된 15개 후보 트렌드에 대하여, 각각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경영정보학회(KMIS) 소속 교수 및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의 CIO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209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였다.

209명 전문가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60명(29%)은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를 연구·교육하는 대학 혹은 연구기관 종사자이고 76명(36%)은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기업 종사자(vendors), 73명(35%)은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을 활용하는 소비기업 종사자(consumers)이다. 학계와 산업계 간의 균형뿐 아니라,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과 소비하는 기업 또한 구분하여 고르게 답변을 취합함으로써 트렌드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솔루션 제공기업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기업간의 중간 관계 및 그 안정성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한편, 솔루션 소비 기업의 경우 일반 개인 소비자와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 및 최종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 등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른 시각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급기업과 소비기업 간 균형을 이루어 답변을 취합하였다.

설문방법은, 총 15개의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고, 그 중 10개를 선정하여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트렌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각각의 트렌드에 대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적절한 길이의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총점을 계산하였다. 획득점수 산식은 특정 트렌드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기반으로 그 트렌드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트렌드 i 의 획득점수는 해당 트렌드에 대한 모든 응답자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응답자 j 가 트렌드 i 를 10위 이내에 위치시킨 경우, 해당 트렌드에 대한 등수에 따라 11에서 뺀 값이 그 응답자의 획득점수로 계산된다. 그러나 응답자가 트렌드 i 를 10위 이내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트렌드에 대한 획득점수는 0으로 처리된다. 그 결과, 15개 트렌드 중 총점 600점 이상을 획득한 11개 트렌드가 최종적으로 2024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로 선정되었다.

$$\text{트렌드 } i \text{의 획득점수 산식} = \sum_j (11 - \text{Rank}_{i,j})$$

where

$\text{Rank}_{i,j}$ = 응답자 j 가 트렌드 i 에 대해 부여한 등수(10위 이내로 부여한 경우)

$\text{Rank}_{i,j}$ = 11(10위권 밖으로 부여한 경우)

4.2 2024 디지털 비즈니스 11대 트렌드 소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최종 트렌드를 도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 혹은 연구기관 종사자,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기업 종사자,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솔루션을 활용하는 소비기업 종사자로 구분되었다. 이 설문조사에는 총 20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이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상위 11개의 최종 트렌드를 도출했다. 각 트렌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트렌드에 대한 깊은 분석과 설명을 제공한다.

4.2.1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 위한 생성형 AI 응용 확대

2022년 11월에 공개된 OpenAI의 Chat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는 2023년 동안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다(Lee et al. 2023). 생성형 AI란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텍스트(대화나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의미한다. 2024년에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비즈니스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초대규모 AI’의 응용에 주목해야 함을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며, 국내 기업 중 2023년 중반에는 25%가 이미 도입하였고, 68%가 향후 도입 예정 또는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 역시 지난 3월 생성 AI가 전 세계의 GDP를 7% 성장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현기호, 2023). 기업들이 B2B AI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성 AI가 보여줄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경험 확대보다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과 보안 기능 향상에 생성 AI가 당장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 때문이다(이도경, 2023). 마지막으로 신약개발에서부터 요식업의 경우 새로운 메뉴 개발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거나, 제품 디자인 과정에 활용하여 R&D 업무 고도화가 기대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2.2 클라우드 AI 플랫폼 시장의 성장 및 확대

클라우드 AI 플랫폼은 기업들이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등 AI 기반의 서비스를 용이하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End-to-End 서비스 지원 도구를 뜻한다. 최종 사용자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사용자의 방화벽 내에 위치하는 프라이빗 클

라우드와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가 소유하지 않은 IT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클라우드 환경을 뜻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나눌 수 있다. AWS, MS, 구글 클라우드 등은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에 속한다. AI로 무장한 비클라우드 회사들이 클라우드로 진입하여 새로운 영향력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들의 성공여부에 따라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가 지금과는 달라질 수도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황치규, 2023).

한국IDC에 의하면 2023년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한 4조 2549억 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한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16.9%의 성장률로 7조 6,642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2분기 기준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은 AWS 33%, MS 22%, 구글 11%로 3개 기업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시장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결합하며 클라우드 2,3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에게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오로라, 2023). 구글은 클라우드에서는 후발 주자였던 구글이 AI 분야에서 만큼은 알파고를 개발했던 저력을 내세우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4.2.3 생성형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출현

2023년 10월 2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1999~2000년 사이에 경험했던 Internet Gold Rush가 최근 AI의 등장과 함께 다시 재현되고 있으며, 많은 투자 자금이 AI, 특히 생성형 AI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투자는 기술력이 있는 큰 스타트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생성형 AI가 기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2024년에도 계속해서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술과 관련한 스타트업들의 출현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대영, 2023).

국내외로 주목받는 다양한 유망 스타트업들이

있다. 에픽은 네이버 자회사로, 에픽의 AI 이어북은 사용자 사진을 고교 졸업 사진 스타일로 바꿔주는 인기 있는 AI 필터를 제공한다. AI21 Labs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으로, 자체 LLM ‘취라식-2’를 보유하며 워드툰이라는 AI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포티투마루는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경량화된 대형언어모델을 활용한 AI를 제공하며 2023년 9월 모두를 위한 AI 생태계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AI 서비스, 대한민국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3대 의제를 활동 목표로 하는 생성AI 스타트업협회가 출범하였다(정두용, 2023).

4.2.4 AI가 촉발하는 정보보호/보안 위험 확대

AI 기술의 발전은 정보보호/보안 산업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측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윤희, 2023). 먼저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모니터링 등 반복적인 일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보호 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AI는 해킹 기술을 쉽게 습득하게 하여 정보 유출을 용이하게 만들고, 악성 코드를 쉽게 개발하게 할 뿐 아니라 이후 공유 및 전파 역시 빠르게 할 수 있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적, 법적 대응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보보호 산업은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안업무의 상당 부분이 탐지 및 모니터링 등 시간 소모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AI는 많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로 최근 IB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보안 업무에 AI와 자동화를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서는 발생한 데이터 유출에 있어서 발견한 평균 시점의 차이가 약 74일 차이가 나는 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월 챗GPT에서 발생한 ‘DAN(DO Anything Now, 지금 무엇이든 해라)’ 사례가 있는데, 이는 페르소나 설정을 통해 콘텐츠 제한에 대

한 자체 프로그래밍을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해킹에 성공하였고 이 방법을 공개 커뮤니티에서 공유하여 문제가 되었다(김용원, 2023). 이글루코퍼레이션 같은 증권 보안업체의 경우 보안 분야에 특화된 소규모언어모델(sLLM)을 통한 구축형 AI 모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기도 하다.

4.2.5 Cloud Native의 확산 지속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최대화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 실행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배치보다 구성 방식에 더 큰 중점을 두고, 클라우드 환경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특정 클라우드 환경에 종속되지 않도록 설계되며 이는 클라우드 기능들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며, 비용 효율성과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운영 환경을 통합함으로써 배포 및 확장을 단순화하며,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을 작고 독립적인 서비스로 나누어 각각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2023년을 기점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데, Gartner의 보고에 따르면 클라우드 시장은 770조원을 넘어서며 앞으로 수년 간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이머진 리서치에 따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21년 37억 8790만 달러였으며, 2030년에 이르면 수익이 254억 6350억 달러 규모로 매출 측면에서 23.5%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Gartner의 견해와 일치한다.

4.2.6 슈퍼앱이 주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슈퍼앱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앱에서

모든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편의성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을 마련해준다. Gartner의 2023년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플랫폼은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슈퍼앱(Super App)’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슈퍼앱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기술 수준을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의 용이성은 슈퍼앱의 핵심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다. 슈퍼앱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선호와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인다. 어떤 경우에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각종 서비스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는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4.2.7 AI 관련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AI 기술 발전과 반도체와의 결합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I 반도체는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이나 의료기기와 같은 일상적인 기기부터 자율주행차, 로봇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가진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설계와 최적화가 중요해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Gartner의 예측에 따르면,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은 2022년 기준 442억 달러 규모에서 성장하여 2024년에는 671억 달러, 2027년에는 1,19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은 고성능 연산과 데이터 처리

가 중요한 AI 응용 분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산업계, 특히 SK Hynix와 같은 기업들은 HBM, PIM 기술을 통해 AI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힘쓰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기술의 축적이 필요하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AI 반도체 산업 트렌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

4.2.8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이 주도하는 로봇 시장

모바일 협동로봇은 3D센서를 이용해 장애물 회피 및 목표위치로의 이동 가능하다. 모바일로봇은 일반 도로를 (자율)주행하며 음식을 배달할 수 있고 정해진 목적지에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도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커져가는 가반하중(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이 5/9kg(경량)에서 20/25kg(중량)으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최대 30kg까지 가능하다. 국내 협동로봇 1위, 두산로보틱스는 자율주행 기반 모바일로봇 시장 진입을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연말 기업 공개(IPO)로 공모한 자금 중 일부를 자율주행 로봇 기업 인수에 쓴다는 계획이기도 한다

산업용 로봇 시장을 협동로봇이 주도하고 있다면, 민간 로봇 시장은 서비스 로봇이 주도한다. 출시되고 있는 주요 산업별 서비스 로봇으로 4가지가 있다. 첫번째로는 일반 서비스 관련 로봇으로 가정용 청소 로봇, 개인용 교육 로봇 등이 있다. 대화형으로 설계되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맞춤형 청소 및 교육 경험을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청소 작업이나 학습 경험을 증진시킨다(Parthiban and Adil, 2023). 두번째는 푸드테크 관련으로 치킨 로봇, 요리 로봇, 바리스타 로봇, 서빙 로봇 등이 있다. 요리 로봇은 음식 조리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세번째는 물류/유통 관련으로 자율이동로봇(AMR), 무인운반로봇(AGV) 등이 있다. 자율이동로봇은 물류 및 유통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네번째로는 의료/보건/복지 관련으로 의약품 운반 로봇, 방역/소독 로봇, 노인 돌봄 로봇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국방, 건설 등 전문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로봇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2.9 자율주행, UAM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성숙

2024년은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기술의 성숙하면서 UAM(도시 공중 이동 수단)의 상용화되고 도시 공중 이동 수단으로서 UAM이 상용화되면서, 도심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더욱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모빌리티를 강조하여 전기 자동차 및 친환경 연료 채택이 증가하면서 환경 보호에 더 큰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도입하여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한 교통 흐름 최적화가 더욱 중요시되며, 이는 교통 체증 해소 및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5G 및 통신 기술의 발전은 5세대 이동통신(5G) 및 통신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자율주행 차량 및 모빌리티 서비스 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Guidehouse Insight)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자율주행 기술종합순위 13위에 오르며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자율주행 안전보고서(VSSA) 승인을 받았고, 싱가포르의 국가 주도 스마트인프라 프로젝트인 COSMO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성과들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SK텔레콤과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마스오토는 AI 대형트럭 자율주행 고

도화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미들마일에서의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 수집과 AI 분석으로 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4.2.10 친환경 IT 도입/기존 업무 친환경화 통한 ESG 강화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1°C 상승하는 등 온난화 속도가 이례적(IPCC, 2023)이다. 이에 따라 RE(Renewable Energy) 100, CF100 등 국제 에너지 캠페인에 대한 동참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IT기업들은 이미 RE100 참여를 선언했다. RE100은 자발적 협약이지만,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 업체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을 필두로 하는 여러 국가들이 탄소세를 적용하는 등 무역장벽을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내 기업들(특히 수출기업들)이 느끼게 될 친환경 에너지 사용/탄소배출 절감에 대한 압박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ESG 관리에 대한 전세계적 압박이 강화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IT 기업의 ESG 대표주자, Microsoft(MS)는 2025년까지 모든 건물과 데이터센터에서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2050년까지는 1975년 이후 회사의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탄소 배출을 소거하는 목표를 세워 이를 실현하기 위해 MS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2.11 LCNC를 통한 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LCNC(Low Code, No Code)란 시각적 IDE(통합 개발 환경)에서 직접적인 코딩 없이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을 만들어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개발 방법이다. 디지털 전환(DX)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개발 전문 인력과 지식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Gartner에 따르면, 전 세계 Low Code 도구 시장이 약 23% 성장했으며, 2025년까지 새로운 앱 개발 중 70%가 No Code 또는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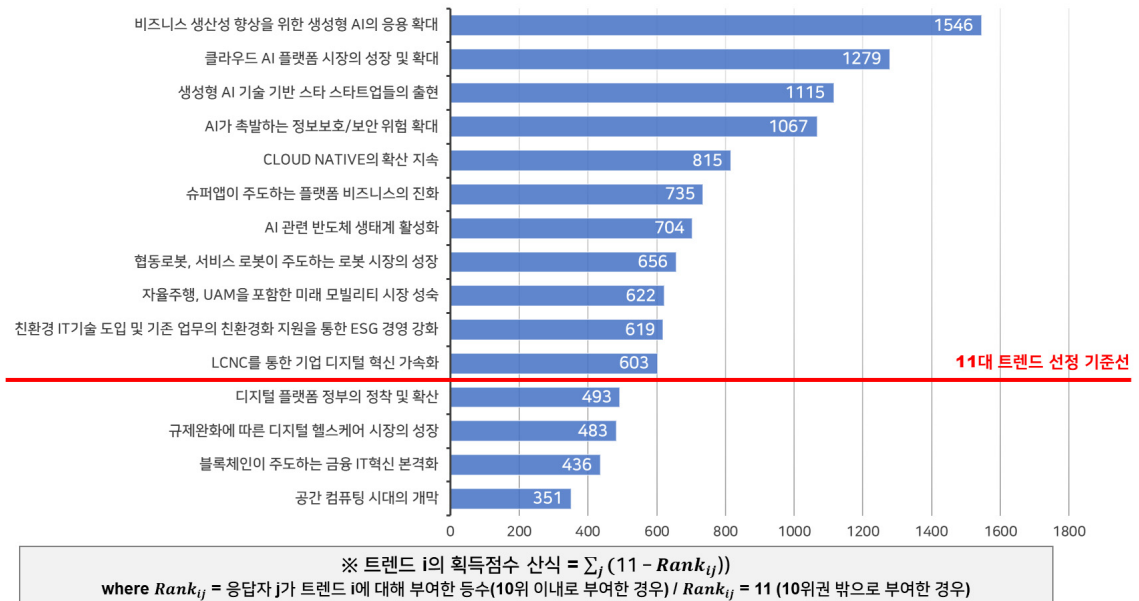
Code 기술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LCNC 시장은 작년 217억 달러에서 2025년에 455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Market and Market)되며 국내에서도 다수의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LCNC 개발 시스템의 발전으로 코딩 지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어도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민 개발자가 등장하였다 (진아영 등, 2022). 시민 개발자에겐 쉽지 않았던 IT 진입 장벽이 생성형 AI를 통해 낮아지면서 LCNC의 기업내 저변 확대가 한층 빨라지고 IT 개발자들도 생성형 AI로 인해 LCNC 활용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 향상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개발자가 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개발 라이프사이클의 혁신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유형의 개발자들은 더 이상 특정 언어를 습득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AI가 생성한 코드를 리뷰하거나 코드가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게 된다. 결국, 개발자 역할 변화와 함께 개발 프로세스의 지능화 및 자동화로 나타나면서 전반

적인 기업 개발 라이프사이클의 혁신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4.3 설문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024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는 획득점수 600점 이상을 받은 총 11개의 최종 후보 트렌드로 선정되었다(<그림 5> 참조). ‘기술(technology)’의 관점에서 보면, 바야흐로 ‘인공지능(AI)’, 그 중에서도 특히 ‘생성형 AI(Generative AI 또는 GenAI)’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1위~4위에 선정된 트렌드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되어 있으며, 7위에 선정된 ‘AI 관련 반도체’, 8위에 선정된 ‘로봇’, 9위에 선정된 ‘자율주행, UAM’, 그리고 11위에 선정된 ‘LCNC(Low Code, No Code)’도 모두 최근 급격한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2024년은 그 어떤 기술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2024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최종 후보 트렌드 획득점수 현황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온 ‘클라우드(Cloud)’와 관련된 트렌드 역시 2위와 5위에 선정되어 있어 내년에도 여전히 주목해야 할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최근 국내 기업들이 ‘무조건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지향’했던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전략에서 ‘필요에 따른 스마트한 클라우드 전환을 지향’하는 클라우드 스마트(Cloud Smart) 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다소 그 성장이 주춤할 뻔한 상황이었으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선도적인 AI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다시 그들이 주도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격적으로 제곱됨에 따라 다시금 성장의 동력을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즈니스 응용’ 관점에서는 슈퍼앱, 협동로봇과 서비스로봇, 자율주행과 UAM(미래 모빌리티), ESG(환경친화적 IT) 등이 2024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선정되었다. 로봇, 자율주행, ESG는 오래 전부터 미래에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테마들이지만 소위 주류(mainstream)로 편입되지는 못했던 것들이다. 비록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이런 트렌드들이 이번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2024년이 이러한 기술혁신의 시대로 넘어가는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에 최종 순위에 들지 못한 트렌드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헬스케어’, ‘블록체인 중심의 금융IT 혁신(CBDC, STO 등)’, ‘공간 컴퓨팅(XR)’ 등이 있다. 이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트렌드로 선정되지 못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여전히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정부의 관심과 투자의지가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보다 명확한 청사진 제시 및 이를 구체화하는 적극적인 민간사업 발주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블록체인 중심의 금융IT 혁신’의 경우는 아직 제도적, 시장환경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표 7〉 소속기관 유형별 후보 트렌드 순위 현황

후보 트렌드	종합 순위	학계	공급 기업	수요 기업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의 응용 확대	1	1	1	1
클라우드 AI 플랫폼 시장의 성장 및 확대	2	3	1	3
생성형 AI 기술 기반 스타 스타트업들의 출현	3	2	3	4
AI가 촉발하는 정보보호/보안 위협 확대	4	4	5	2
Cloud Native의 확산 지속	5	10	4	5
슈퍼앱이 주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6	6	6	6
AI 관련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7	8	7	7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이 주도하는 로봇 시장의 성장	8	5	8	12
자율주행, UAM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성숙	9	6	9	11
친환경 IT기술 도입을 통한 ESG 경영 강화	10	9	10	8
LCNC를 통한 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11	11	11	9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착 및 확산	12	12	14	13
규제완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13	14	13	10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금융 IT혁신 본격화	14	13	12	14
공간 컴퓨팅 시대의 개막	15	15	15	15

으로 보인다. 다만 이 트렌드와 관련해 정부의 규제완화 및 국회 차원의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 활동이 근래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다소 지나고 나면 그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 컴퓨팅’은 HMD(Head Mount Display) 기기의 기술 혁신이 아직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어, 이 역시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은 소속기관 유형(학계, 공급기업, 수요기업)에 따른 각 트렌드 별 순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보면 다음 3가지 유형별 인식차이를 보이는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1: 산업계에서는 높게 평가하였으나, 학계에서는 낮게 평가한 트렌드

전체 순위 5위를 차지한 ‘Cloud Native의 확산 지속’ 트렌드의 경우, 공급기업은 4위, 수요기업은 5위 등 산업계에서 높게 평가한 트렌드였지만, 학계에서는 10위로 평가하여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연구조사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이미 확인되었던 바이다. 작년에 수행된 2023년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전망 연구에서는 ‘Cloud Native의 확산’ 트렌드가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는데, 이 당시에도 수요기업에서는 1위, 공급기업에서는 4위로 높게 평가했지만 학계가 10위로 평가하는 바람에 종합순위가 4위로 내려간 바 있었다.

‘Cloud Native의 확산 지속’은 2024년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 영향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트렌드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 보다 향상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학계의 낮은 인식의 결과로 인해 많은 국내 대학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교과과정이 부실한 편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유형 2: 공급기업에서는 낮게 평가하였으나, 수요기업에서 높게 평가한 트렌드

우선 전체 순위 4위를 차지한 ‘AI가 촉발하는 정보보호/보안 위험 확대’ 트렌드의 경우, 공급기업에서는 5위로 평가한 반면 수요기업에서는 2위로 평가하여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IBM이 자사의 새로운 AI 플랫폼인 Watson X를 출시하면서 정보보호/보안과 안정성을 강조하여 차별화를 시도했는데, 이처럼 향후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 제공자들이 수요기업들을 공략하고자 할 때, ‘정보보호/보안’ 상의 강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음을 본 전망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전체 순위 10위를 차지한 ‘친환경 IT 도입 및 기존 업무 친환경화 통한 ESG 경영 강화’ 트렌드의 경우에도, 공급기업에서는 10위로 평가했지만 수요기업에서는 8위로 평가하여 다소간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IT의 경우 정보보호/보안과 함께 기업의 ‘비용 센터(cost center)’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공급기업들은 본 트렌드에 연관된 사업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전망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요기업에서는 친환경 IT 및 ESG를 현재 더 중요한 테마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급기업들은 이를 사업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 전체 순위 11위를 차지한 ‘LCNC를 통한 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트렌드 역시 공급기업에서는 11위로 평가했지만 수요기업에서 9위로 평가하였다. 즉, 공급기업보다 수요기업이 더 관심 갖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LCNC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통한 시장 개척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 3: 수요기업에서는 낮게 평가하였으나, 공급기업에서 높게 평가한 트렌드

첫 번째로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한 ‘클라우드 AI 플랫폼 시장의 성장 및 확대’ 트렌드의 경우, 수요기업에서는 3위로 평가했지만 공급기업에서는 (공동) 1위로 평가하여 수요기업보다 공급기업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3위도 충분히 높은 순위이므로 클라우드 AI 플랫폼의 중요성과 시장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요처에서는 공급기업에 비해 AI 플랫폼 도입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한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이 주도하는 로봇 시장의 성장’ 트렌드의 경우, 수요기업은 12위로 상당히 낮게 평가한 반면 공급기업은 8위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공급기업들의 주도로 로봇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지만, 로봇 도입에 대한 수요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공급기업들의 인식 수준만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로봇의 경우, 수요처의 인식 전환을 통해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이 주류시장까지 확대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종합순위 9위를 차지한 ‘자율주행, UAM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성숙’ 트렌드의 경우에도 수요기업은 11위로 낮게 평가한 반면, 공급기업은 9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소개한 로봇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및 UAM 역시 수요기업들은 아직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급기업들은 2024년에 민간시장 개척보다는 공공시장 쪽을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5.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촉진했으며,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는 복잡한 동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술적 발전, 세계화,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 등이 주도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되는 동향과 패턴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동향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밝히고,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심에는 다양한 분석 접근 방식의 통합이 있으며, 각각은 이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독특한 통찰력을 추출하기 위해 맞춤화 되어있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산업 보고서, 뉴스 기사, 소셜 미디어 토론 등의 텍스트 데이터 소스에 내재된 잠재적 주제와 패턴을 발견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연구는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용적인 통찰력으로 정제하여 신흥 트렌드와 그 배경을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으로 얻은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확실한 판단을 내리고, 트렌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추구했다. 학계의 학자, 산업 실무자, 공급업체 및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는 다양한 시각과 선호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 데이터는 질적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트렌드와 상관 관계를 식별하여 연구 결과의 심도와 폭을 더욱 향상시킨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단순한 설명과 분석을 넘어서 연구 결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사 결정자들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했다. 국내 디지털 비즈니스 리더들과 국제적인 동료들의 인식과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및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의 연계성을 밝히고 수렴과 발산의 영역을 식별한다. 이러한 통찰력은 정책 결정자, 산업 리더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디지털 경제의 복잡성을 탐색하고 신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한국의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도 있게 증진하고, 디지털 시대에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을 주도하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대한 이론적 통찰력과 실용적 함의를 모두 제공한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엄격한 분석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이 연구는 학계, 실무자 및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서 한국의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향후 노력에서 더 발전시킬 측면이 있다. 첫째로, 연구팀이 주로 학계 인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미묘한 면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한계는 연구팀의 구성을 산업 전문가 및 시장 조사 기관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다변화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계부터 산업까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포괄하는 협력적인 연구팀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과정은 더욱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산업의 현실과 복잡성이 연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연구는 IT 트렌드의 ‘중요성’을 단일 차원에서 평가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IT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차원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 시장 영향력, 예상

도입 시기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시각에서 IT 트렌드를 조명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역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세세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과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는 IT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 및 전략을 맞춤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선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엄격성과 관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학계와 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트렌드를 평가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복잡성을 탐색하고 보다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대영, “‘생성형 AI’ 놓고 너도나도 서비스 고도화 …성패 ‘여기’에 달렸다.”, 매일경제, 2023. 10.21, Available at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24468>.
- [2] 김용원, “챗GPT ‘탈옥’ 사례도 등장, “구글 AI ‘바드’는 싸구려 복제품에 불과”, 비즈니스포스트, 2023. 02.07, Available at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504.
- [3] 김윤희, “생성 AI, 정보보안에 새 바람…기회일까, 위기일까”, 지디넷코리아, 2023.9.19 Available at <https://zdnet.co.kr/view/?no=20230918110312>.
- [4] 양희동, 안현철, 이정, 강현정, “2023 대한민국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 인식조사: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다”, 경영정보학연구, 제25권, 제1호, 2023, pp. 189-212.
- [5] 오로라, “엔비디아와 손잡은 구글, 클라우드

- 시장 AI로 승부수”, 조선일보, 2023.12.14, Available at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8/31/O3GV46LYSNEFLCKYMIHKPUANMI/.
- [6] 이도경, “빅테크 ‘기업용 생성AI 서비스’ 경쟁에 먼저 나선 까닭은?”, 서울파이낸스, 2023.9.13, Available at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632>.
- [7] 정두용, “생성형 AI 열풍에 국내 스타트업 머리 맞댄다…협회 출범”, 이코노미스트, 2023.09.25, Available at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9250047>.
- [8] 진아영, 반영환, “로우코드/노코드 개발 시스템에서의 시민 개발자 역량 및 개발 프로세스 연구”, 문화와융합, 제44권, 제11호, 2022, pp. 119-131.
- [9] 현기호, “매킨지 “생성 AI가 근로자에 초능력 부여, 생산성 향상“ 美언론 평가는?”, 이코리아, 2023.6.14, Available at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494>.
- [10] 황치규, “[엔터프라이즈핫이슈] AI 시대 클라우드 시장...새 경쟁자들이 온다”, Digital Today, 2023.10.12, Available at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323>.
- [11] ETRI Insight, “ETRI가 바라본 2023년 ICT 이슈 및 유망 기술”, 2023.2.28, Available at <https://ksp.etri.re.kr/ksp/plan-report/read?id=1230>.
- [12] Gartner,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4”, 2023.10.16, Available at <https://www.gartner.com/en/articles/gartner-top-10-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24>.
- [13] IDC, “IDC FutureScape: Worldwide IT Industry 2024 Predictions”, 2023.10, Available at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US50435423&_gl=1*ks4kuj*_ga*NjA0NzM5NDUwLjE3MDA3MDQ0NTg.*_ga_541ENG1F9X*MTcwNDI3MDQxOC4zLjAuMTcwNDI3MDQxOC42MC4wLjA.
- [14] IITP, “2024년 ICT 10대 이슈”, 2023.11.3, Available at <https://www.ncsl.or.kr/forum/gita-jaryo/2024-ict-10dae-isyu>.
- [15] Lee, K. J., T. Hong, H. Ahn, T. Kim, and C. Koo, “Special topic: The impact of ChatGPT in society, business, and academia”,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33, No.4, 2023, pp. 957-976.
- [16] Parthiban, E. S. and M. Adil, “Examining the adoption of AI based banking chatbots: A task technology fit and network externalities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33, No.3, 2023, pp. 652-676.
- [17] SPRI, “2023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2023.9.22, Available at https://spri.kr/posts/view/23652?code=data_all&study_type=research

2024 Korea Digital Business Trend Study: Listening to Voices from Academia and Industry

Hajin Shin^{*} · Hyunchul Ahn^{**} · Taekyung Kim^{***} · Jung Lee^{****}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igital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and predicts the digital business trends to be noted in 2024. The study comprehensively review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CT market outlook and provides objective and in-depth analysis by compiling opinions from various experts. In particular, throug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t derives practical trends applicable to the local business environment, provides strategic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business in Korea, and suggests directions for Korean companies to adapt to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and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20 preliminary candidate trends were initially identifi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reports from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research institutes. We then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experts from industry and academia to select 15 shortlisted trends from these 20 trends and 10 trends selected from the previous year. Finally, we conducted a large-scale survey of 209 experts from academia and industry, and we selected 11 domestic digital business trends to focus on in 2024. This study, which presents an outlook of digital business trends suitable for the Korean business environment based on a variety of opinions scientifically gathered from Korean digital business leaders,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IT trends in Korea from a business perspective and their differences from global trends.

Keywords: *Digital Business Trend, Business Leader, Comparative Study, IT Strategy, IT Expert*

* Ph.D. Student, Ewha School of Business,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IT, Kookmin University

*** Professor, Big Data Analytics,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GB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저 자 소 개 ○



신 하 진 (hajinshin@ewhain.net)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시스템 박사 과정 재학 중이며 AI 리걸 번역 스타트업 AILingGo에서 Director를 맡고 있다. 동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 회사인 “와이어드컴퍼니”에 재직할 경력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소셜커머스, 럭셔리 마케팅 등이다.



안 현 철 (hcahn@kookmin.ac.kr)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경영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정보기술 수용 등이다. 지금까지 Information and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등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 태 경 (tk_kim@khu.ac.kr)

경희대학교 빅데이터융용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경영정보학을 전공했다. 주요 관심사는 디지털 웰니스, 전자상거래, 그리고 스마트관광이다. 지금까지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Electronic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등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 정 (jung.lee@hufs.ac.kr)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GBT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KIMEP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식경영 시스템, 지식공유, 전자상거래 등이다. 지금까지 Information and Management, Decision Support Systems,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등 주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접수일 : 2024년 01월 01일

게재확정일 : 2024년 02월 09일

1차 수정일 : 2024년 02월 06일